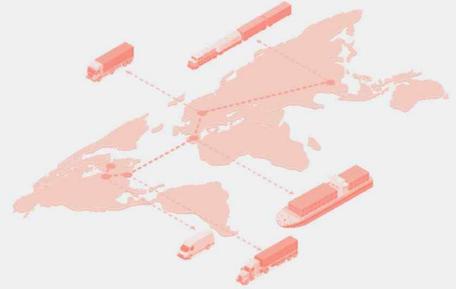




# 2023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 2023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 목 차

[요 약]	4
제1장 2023 세계 교역 전망	5
제2장 2023 세계 무역 환경	8
제3장 2022 한국 수출 평가	10
제4장 2023 한국 수출 전망	11
제5장 지역별 시장 여건 및 전망	
제1절 북미	16
제2절 중국	20
제3절 EU	23
제4절 일본	27
제5절 ASEAN·대양주	30
제6절 인도	35
제7절 중동	38
제8절 중남미	41
제9절 CIS	43
제10절 아프리카	47

**요 약**

- **(총괄)** '23년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동력 저하와 디지털 전환의 시장효과 감소로 주력 품목에 대한 수입 수요 감소가 나타날 전망
  - 다만, 공급 측면의 리스크 해소와 수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경우 3분기 이후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권역)** 신흥시장 중심의 수입 수요 예상, 對中 수출은 다소 위축
  - 일부 신흥시장의 수입 수요 증가가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로 나타날 전망이며, 선진시장은 일부 수출 품목에 한해 수요 유지 예상
  - 우리나라와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규모가 큰 중국의 경기 부진과 불확실성 우려로 對中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지역별 수출 전망 기상도 】**

북미	중국	EU	일본	아세안	대양주	인도	중동	중남미	CIS	아프리카
☀️	☁️	☁️	☁️	☀️	☁️	☀️	☀️	☁️	☁️	☀️

☀️ 대폭증가(10% 이상) ☀️ 소폭증가(3~10%) ☁️ 현상유지(0~3%) ☁️ 소폭감소(0~10%) ☔️ 대폭감소(-10% 이상)

\* 주: 기타지역(대만, 홍콩, 마셜제도 등) 제외

- **(품목)** 소비위축 등 불확실성 장기화로 주력 품목 수출 증가 둔화
  - **(주력)** 무선통신기기·컴퓨터 등 IT 수요 부진으로 메모리반도체 재고 조정은 '23년 상반기까지 나타날 전망, 선박은 수출 호조 예상
  - **(신성장)**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EU 등 주요국 친환경 정책 추진 영향으로 전기차·이차전지 관련 품목은 수출 성장 기대

## I 2023년 세계 교역 전망

- (세계경제) 대외 불확실성 장기화로 2%대 성장 둔화 예상
  - (불확실성 지속) 지정학 갈등(러-우, 미-중) 장기화, 통화 긴축기조 유지, 중국 방역 봉쇄 재강화 등이 경기 하방 위험 주요 변수로 작용
  - (회복세 약화) 美·EU 경기성장률 둔화\*, 중국의 경기 약세 지속\*\* 우려로 글로벌 경제회복 동력 저하\*\*\*, 전년 대비 성장률 약화 예상
    - \* 성장률(IMF, %): (美) ('21)5.7→('22)1.6→('23)1.0 / (EU) ('21)5.4→('22)3.2→('23)0.7
    - \*\* 中 경제성장률 전망(국가통계국, %): ('20)2.2 → ('21)8.1 → ('22)3.2 → ('23)4.4
    - \*\*\* 글로벌 전산업 PMI(기준치=50, 한국은행): ('22.1Q)52.5→(2Q)52.0→(3Q)49.9→(10월)49.0
  - 다만, 산유국 등 일부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에 힘입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 수입단가('21.11월→'22.11월, \$/t): (원유)611→725 / (가스)809→1,088 / (석탄)176→199
    - \*\* '23년 성장률(IMF, %): (선진국)1.1 / (인도)6.1, (오만)4.1, (사우디)3.7, (쿠웨이트)2.6

【 '22-'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연도	IMF('22.10)	OECD('22.11)	EIU('22.10)	블룸버그('22.11)	IB 평균('22.10)*
'22년	3.2	3.1	3.2	2.9	3.2
'23년	2.7	2.2	2.3	2.1	2.0

\*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IB는 Citi, 골드만삭스 등 9개사

### <참고> 2023년 한국경제 전망

- OECD는 한국이 '22년도에 2.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22.11월)
  - 일상 회복 중심의 방역 정책 전환으로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졌으나 주요국 수입 수요 둔화와 에너지·원자재 가격상승, 무역적자 심화 등으로 회복세 약화
- '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대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세를 보일 전망
  -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과 불확실성 속에서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경기둔화가 나타날 가능성

【 '22-'23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연도	OECD ('22.11)	KDI ('22.11)	한국은행 ('22.11)	산업연 ('22.11)	IMF ('22.10)	EIU ('22.10)
'22년	2.7	2.7	2.6	2.5	2.6	2.6
'23년	1.8	1.8	1.7	1.9	2.0	1.9

\*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국제교역) 상품교역은 전년 대비 1~2%대 성장 전망, 둔화 흐름 예상

- (불안요인) 통화 긴축 장기화로 글로벌 수입 수요 감소, 高에너지 가격, 지정학 갈등 확대, 변이 재확산 등 요인이 교역 불확실성 가중

\* '23년 세계 상품교역은 유가·물가·러-우 사태 향방에 따라 역성장(△2.8%)도 가능(WTO)

- (기회요인) 해상운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 공급망 병목 개선\*\*, 중동 지역 구매력 회복\*\*\* 및 디지털·친환경 전환 가속화 등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20.1.3)1,023→('22.1.7)5,110→('22.12.2)1,171 (관세물류협회)

\*\*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GSCPI): ('20.12월)1.6→('21.12월)4.3→('22.11월)1.2 (뉴욕연방준비은행)

\*\*\* '23년 중동 경제성장률: 3.5% /(사우디·쿠웨이트)재정 흑자전환, (오만)공공부채 개선 (IMF)

【 '22-'23년 세계 상품교역 증감률 전망 (%) 】

연도	OECD ('22.11)	IMF ('22.10)	WTO ('22.10)
'22년	5.4	2.9	3.5
'23년	2.9	2.0	1.0

□ (권역별 동향) 경기둔화 흐름 속 신흥국 중심의 교역 개선

- (GDP) 신흥국(3.7%)에 비해 선진국(1.1%)의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으며, 중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신흥국 모두 전년 대비 성장률 보합 예상(IMF, '22.10월)

【 '23년 주요 권역별 GDP 성장률 전망 (%) 】



\* 자료원 : IMF('22.10)

- (교역) 상품교역도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나, 중동·아프리카·CIS의 수입이 타 권역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WTO)

【 '22-'23년 권역별 상품교역 증감률 전망 (%) 】

연도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CIS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2년	3.4	8.5	1.8	5.4	2.9	0.9	14.6	11.1	1.6	5.9	6.0	7.2	△5.8	△24.7
'23년	1.4	0.8	0.8	△0.7	1.1	2.2	△1.5	5.7	0.3	△1.0	△1.0	5.7	3.3	9.4

\* 자료원 : WTO('22.10)

◇ 권역별 주요 경제 이슈 ◇

권역 (23년 성장률 전망)		긍정요인	불안요인
선진국	북미 (미국:1.0%)	· 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 · 韓 소프트파워(한류) 강화 · 대기업 현지 투자 진출 활발	· 인플레이션-금리인상 지속 · 경기둔화, 소비위축 우려 · 보호무역 경향 강화
	유럽 (EU:0.7%)	· 한-EU FTA 무관세 이점 · 그린·디지털 전환 수요 ↑ · 방산 등 국가 간 산업 협력 기회	· 러-우 사태, 에너지 위기 · 인플레이션, 소비경기 둔화 · EU기술·환경규제 무역장벽화
	일본 (1.6%)	· 신(新)한류 전 세대 확산 · 공공·민간 디지털전환 확대 ·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장진입 용이	· 리쇼어링 등 자국 생산 강화 · 고물가·엔저로 수입 수요 감퇴 · 對韓 수출규제·정치외교 문제
	대양주 (호주:1.9%)	· 공급망·탄소중립 협력 유망 · 핵심 원자재 투자 증가 · 디지털·관광·인프라 투자 ↑	· 쿼드·IPEF등 참여로 對中갈등 · 원자재 가격변동에 취약
신흥국	중국 (4.4%)	· 일상회복, 소비진작 등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가속화 · RCEP 관세효과·RVC협력 강화	·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 中 중심의 공급망 구축 · 원자재 공급 불안, 방역 재강화
	동남아 (아세안 <sup>5</sup> :4.9%)	· 아세안 중심의 GVC 재편 · 脫중국기업 이전 확대 · 한류성숙지역, 디지털적응도 ↑	· 대외변수·충격 취약한 경제 · 비관세장벽, 무역수지 불균형 · 정치·경제·외교적 불안정
	인도 (6.1%)	·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모멘텀 · 디지털, 제조업 집중 육성 · 인프라·탈탄소 투자 확대	· 보호무역주의(자국산업보호) · 행정 불확실성, 열악한 인프라 · 일본 등 경쟁국 진출 확대
	중동 (3.6%)	· 국가 비전 메가 프로젝트 · 프로젝트 기회, 내수 회복세 · 에너지믹스·산업구조 개편	· 역내 불안정(자국우선주의) ·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 유가 변동, 분쟁 등 리스크
	아프리카 (3.7%)	· AfCFTA 시행, GVC 재편 기대 · 전자상거래 급속 발전 ·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 낮은 신용 등급 · 유가, 환율 등 대외변화 취약 · 기후변화, 곡물 부족 위협
	중남미 (1.7%)	· 한류 확산, 전자상거래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ICT 중점육성 · 美진출 위한 제조거점 활용	· 對中수입 증가, 중소기업 진출 ↑ · 인플레·고환율·시장불안 증가 · 반기업정서, 반시장정책 우려
	CIS (러시아:△2.3%)	· 경제제재 반사이익(韓 제품수요 ↑) · (중앙아) 경기성장세 지속 · (우크라) 재건복구사업 수요	· 역내 불안정성, 미·EU와 갈등 · 경제제재로 경기성장 둔화 · 물류·금융제재로 현지생산 애로

\* 자료원 : IMF('22.10), KOTRA (해외지역본부 의견 종합)

## II 2023년 세계 무역 환경

### 1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

#### □ 글로벌 파장이 큰 돌발변수의 발생 가능성 심화

- 특정 지역의 위기 요소가 쏠 지구적 위기로 전이되어 무역환경의 돌발변수로 작용\*,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위기 상시화를 초래

\* (예)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식량난 발생, 중국 산발적 방역봉쇄로 생산·물류 차질 등

#### 【 (참고) '23년 무역환경 주요 이슈 】

- ▷ (선진국) 진영 대립 격화에 따른 공급충격, 에너지價 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 확대 등
- ▷ (신흥국) 美 연준의 공격적 통화 긴축에 따른 달러 유출 위기 (스리랑카, 가나 등)
- ▷ (중국) 부동산 위기에 더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보너스 효과' 사라지며 성장 여력 감소
- ▷ (중동·중남미) (중동)이란 핵협상 난항, (중남미)핑크타이드(좌파물결)에 따른 역내 미-중 갈등 심화

#### □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 블록' 가속

- 팬데믹과 기후변화, 지정학 갈등 위기를 경험한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과 신통상이슈에 대응하는 지역별 경제 블록을 추진

#### 【 주요 권역별 '경제 블록화' 추진 동향 】

- ▷ (미국·EU)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프렌드쇼어링, EU 반도체칩법 등 핵심 품목 역내 생산 집중
- ▷ (중국) RCEP 발효를 통한 역내 경제협력 강화, 내부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밸류체인 재편 추진
- ▷ (아프리카)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시행('21.1월) 이후 역내 통합 가속화

\* 자료원: KOTRA 해외지역본부

- 각국은 첨단기술·전략물자에 관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배치(리쇼어링·니어쇼어링)를 유도해 수급 안정성과 경쟁우위 확보에 총력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핵심원자재법 등 중요자원에 관한 공급망 관리 강화 입법 증가

- 불확실성 지속 시 공급망 안정을 이유로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우려, 이에 따른 세계교역 회복세 둔화 불가피

\* "통화 긴축, 경제 블록화 등 무역장벽 강화로 '23년 세계무역성장률 2.5%로 둔화 예상"(IMF)

## 2 산업 패러다임 전환 가속

### □ (녹색) 저탄소·친환경 전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투자 확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정책이 새 무역장벽으로 가시화\*, 환경규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석유·가스 생산업체의 메탄 배출에 신규 과세부과, (EU) 모든 역외국을 대상으로 '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과도기간 적용

\*\* (美) 노후 인프라 재건에 1.2조 달러 투자 / (EU) 친환경산업에 10년간 1조 유로 투자

### □ (디지털) 첨단·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산업육성

-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촉진을 국가정책으로 추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확보 경쟁 격화\*\*

\* (美) 제조업 USA/Build Back Better, (獨) 산업 제조혁신 4.0, (中) 新인프라건설 등

\*\* 전 세계 디지털기술 투자액 전망(조 달러, Statista): ('19)1.2 → ('22)1.9 → ('25) 2.9

#### ▷ 디지털·녹색 전환은 산업 전환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기회요인으로 작용 가능

→ 美 에너지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2천억 달러 R&D 투자 추진"

## 3 위기 속 기회 시장의 부상

### □ 시장여건 변화와 산업 전환에 따른 기회요인 발생

- (중동) 재정 흑자\*로 팬데믹에 지연된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재개, 고유가를 기회로 '탈석유' 산업으로 전환, 에너지 다각화 추진\*\*

\* (사우디) 9년 만에 재정 흑자 전환, (쿠웨이트) 8년 만에 재정 적자 축소, 흑자 돌입

\*\* (사우디) 자푸라 가스전 블루수소, (UAE) 마스다르시티 수소 프로젝트, (카타르) 수소버스

- (중미) USMCA 발효 이후 美 자동차(전기차)·가전·항공우주 기업의 밸류체인 개편 움직임(니어·프렌드쇼어링)에 따른 투자 수혜 기대\*

\* (보쉬) 라인증설 및 디지털화 최대 1억 달러 투자, (GM) '23년 멕시코 내 전기차 생산 목표

- (EU) 에너지·식량·안보 위기 대두로 원전, 친환경, 방산 수요 증가

\* EU Taxonomy에 원전 포함('22.7) / NATO, '24년까지 GDP 2% 군비 배정 합의

- (동·서남아) 중국을 대체할 차세대 글로벌 생산기지로 각광

\* (폭스콘) 애플 맥북 생산기지 베트남으로 이전, 인도 타밀나두 주 아이폰 조립공장 가동

### III 2022년 한국 수출 평가

- '22년 한국 수출은 6,8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실적 기록(전년대비 6% 증가)
  - '21년 수출액인 6,444억 달러를 돌파(12.10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연속 수출 플러스 성장 및 사상 최고 수출실적 경신

【 월별 수출입실적(억 달러, %) 】



\* 자료원 : 관세청

【 수출금액·물량·단가지수(2015=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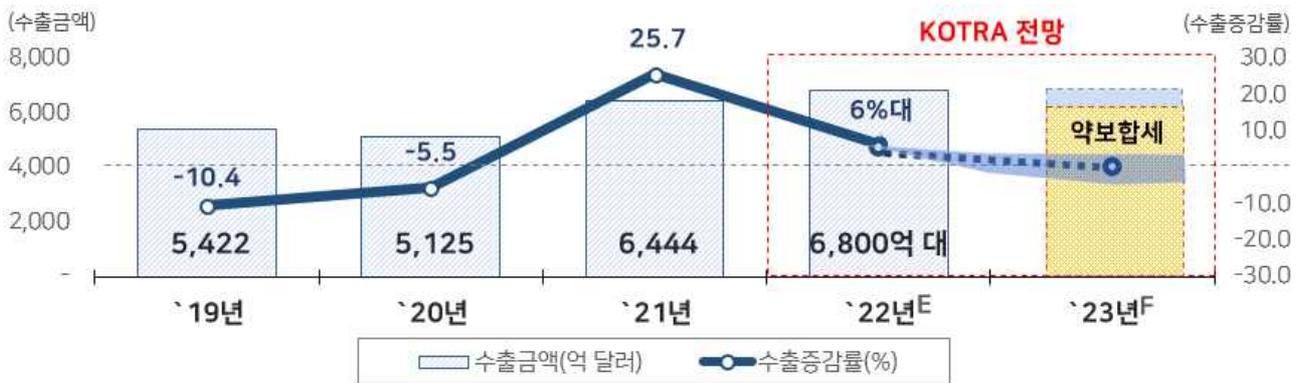
\* 자료원 : 한국은행

- 역대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9.13일), 교역규모 2단계 상승(8위 → 6위), 어려운 대외 여건 속 '22년(9월 누계기준) 무역 10대국 중 교역 증가율 3위 기록
  - \* 수출/수입증가율(%): (1위)미국 21.2/19.7, (2위)네덜란드 16.7/22.9, (3위)한국 12.2/25.0 (WTO)
  - \* 한국순위('21년→'22.1~9월): (수출)7위→6위, (수입)9위→8위, (교역)8위→6위 (WTO)
- 3분기 누계 기준 중소·중견기업 모두 800억 달러 이상 기록
  - \* 기업규모별 수출실적(억 달러/증가율): (중소)889/5.8%, (중견)960/16.3%, (대)3,389/12.9%
- 에너지·원자재價 상승 영향으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 전환
  - 원유·가스·석탄 가격상승\*으로 에너지 수입이 확대되며, 한국 최대 수입액 기록('22.1~11월: 6,715억 달러, +21.2%)
    - \* 11월 3대 에너지 수입단가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원유)18.6, (가스)33.9, (석탄)11.9
  - 한편 원유 수입단가 상승은 석유제품 수출물량 및 수출액 확대에 영향을 미쳐 반도체에 이어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기여\*
    - \* '22.1~11월 수출실적(억 달러, 전년비증감%): (1위)반도체(1,202/4.3), (2위)석유제품(582/70.0)
- (품목) 에너지價 상승으로 석유제품(70.0%) 수출 급증, 전기차 산업 성장과 반도체 수급 개선으로 자동차(15.3%)·차부품(3.3%)·이차전지(13.9%) 수출 증가
  - 다만, 수요 약세, 재고율 증가, 단가 하락으로 반도체(4.3%) 수출 증가 폭은 축소, 가전·화장품·컴퓨터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은 감소\*
    - \* '22.1~11월 수출감소율(%): 화장품(△13.2), 무선통신기기(△8.0), 가전(△5.4), 섬유(△2.5), 컴퓨터(△1.5)
- (시장) 중국(제로코로나 정책 고수)과 러시아(러-우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를 제외한 쏘 지역에서 수출 증가세 시현
  - \* '22.1~11월 권역별 수출증감율(%): 러(△16.3), 중(△2.0)↔인도(21.7), 아세안(18.4), 미(15.3)

## IV 2023년 한국 수출 전망

### □ '23년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동력 저하와 디지털 전환의 시장효과 감소로 주력 품목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가 나타날 전망
  - (불안) 中 방역봉쇄 재개, 美·EU 경기회복 둔화, 이란 핵협상 중지로 중동지역 지정학 갈등 고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긴축정책 강화 등
- 다만, 공급 측면의 리스크 해소와 수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경우 3분기 이후 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기회) 中 방역완화 및 경기회복, 러-우 사태 종결로 전후 복구 수요,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EU·중동 등), 원자재 가격 안정 기대감 등



※ 국내외 기관은 '23년 한국의 수출(통관기준) 증감률을 0~△5%대로 전망

\* (전경련) 0.5%, (산업研) △3.1%, (한은) △3.8%, (무협) △4.0%, (정부) △4.5%, (KDI) △5.7%

□ (권역) 신흥시장 중심의 수입 수요 예상, 對中 수출은 다소 위축

- 일부 신흥시장의 수입수요 증가\*가 우리기업의 수출 기회로 나타날 전망이며, 선진시장은 일부 수출 품목에 한해 수요 유지 예상\*\*

\* '23년 신흥시장 상품 수입 증가율 전망 (IMF) : (CIS) 9.4%, (중동) 5.7%, (아프리카) 5.7%

\*\* (미·EU) 공급망 내재화에 따른 소·부·장 수출 기회, 對中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등

- 우리나라와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규모가 큰 중국의 경기 부진과 불확실성 우려\*로 對中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세계은행, “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과 방역정책 등 상당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 ('22.12)  
→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 ('22년) 2.7%(△0.1%p), ('23년) 4.3%(△0.2%p)

【 `23년 주요 권역별 수출전망 】

권역	전망	주요 기회 요인
선진국	북미 소폭증가	· 전기차 증산 계획으로 이차전지 호조,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예상 · 우방국 중심의 GVC 대응체계 구축으로 관련 기자재·장비 등 수출에 호조
	EU 현상유지	· 에너지 고효율 제품(고효율 가전, 태양광 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 · 디지털·친환경 중심 프로젝트 추진, 관련 기자재·설비 수출 수혜 기대
	대양주 (호,뉴질) 현상유지	· 원자재 시장 확대에 따른 광물 가공 처리(미드스트림) 기술 투자 유망 · 탈탄소 관련 인프라 확충에 따른 건설기자재, 시멘트 등 수요 증가 예상
	일본 현상유지	· 디지털 전환·탈탄소 산업 전환 수요에 대응한 설비투자 확대 전망 ·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IPEF 활용 韓日 공급망 협력 강화 기회 모색 가능
신흥국	중국 소폭감소	·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미·중 갈등으로 對韓 수입수요 감소 우려 · 경제정상화 노력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소비심리 회복 지연
	아세안 소폭증가	· (베트남) 주요 IT기업(애플, 구글 등)의 이전에 따른 관련 기자재 수요 예상 · 국가에너지정책(말련), 전기차산업발전법(필) 등 관련 품목 수요 기대
	인도 소폭증가	·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활용한 2차전지·반도체 부문 기자재 수요 예상 · 팬데믹 이후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소비시장으로 급부상
	중동 소폭증가	· 고유가 수혜 활용한 탈석유 프로젝트 활성화 및 기자재 수요 증가 전망 · 한-이스라엘 FTA 발효('22.12) 효과, 중고차 및 차부품 수요 지속 예상
	아프리카 소폭증가	· 원자재 교역을 활용한 산업다각화 노력 지속, 민관 투자 협력 가능성 · 역내 공급망 구축(AfCFTA 시행 등)으로 우리 기업 현지 공급망 진입 기회
	중남미 현상유지	· USMCA 및 IRA 발효로 자동차부품 등 공급망 이전수요 증가 전망 · 한류 확산 영향으로 한국산 소비재(화장품, 패션, 식품 등) 수요 유지
	CIS 현상유지	· 對러 경제제재에 따른 역내 공급망 재편으로 중앙아시아 수출 기회 증가 · 한류 및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 증가로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 유망

주 : ☀️ 대폭증가(10% 이상) ☁️ 소폭증가(3~10%) ☁️ 현상유지(0~3%) ☁️ 소폭감소(0~10%) ☔️ 대폭감소(10% 이상)

자료 : KOTRA (해외지역본부 의견 종합)

□ (품목) 소비위축 등 불확실성 장기화로 주력품목 수출 증가 둔화

- (주력) 무선통신기기·컴퓨터 등 IT 수요 부진\*으로 메모리반도체 재고 조정은 '23년 상반기까지 나타날 전망\*\*, 선박은 수출 호조 예상\*\*
  - \* '23년 글로벌 IT기기 시장은 경기 침체 여파로 0.6% 소폭감소 예상 (Gartner)
  - \*\* 재고소진, 차세대 D램(DDR5) 출시 등 하반기부터 메모리 단가 회복 기대 (Trendforce)
  - \*\*\* '20년 4분기 이후 수주한 컨테이너선·LNG선 등 물량 인도 개시 예정 (산업연구원)
- (신성장)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美·EU 등 주요국 친환경 정책 추진 영향으로 전기차·이차전지\* 관련 품목은 수출 성장 기대
  - \* 글로벌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30년까지 연평균 37%씩 성장 예상(LMC Automotive), 이차전지 시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30년 3,517억 달러로 증가 전망(SNE리서치)
- (중소품목) 한류로 높아진 국가 인지도를 활용한 소비재(화장품 등), 자동차(중고차),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 예상

【 '23년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

품목	전망	수출 증감 요인
반도체		· 글로벌 경제 하락세로 전방산업 수요 감소 장기화*, 진영 및 자국 우선주의 지속** * '23년 글로벌 매출 전망(억 달러,%) : (가트너) 5,960(Δ3.6), (WSTS) 5,565(Δ4.1) ** EU 반도체법 합의(12.1), 대만 TSMC 대미 투자금액 400억 달러 증액(12.6)
	소폭감소	· 재고 증가로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 지속* 시 수출감소 불가피 * D램 고정가(\$) : ('21.10~12월) 3.71 → ('22.1~4월) 3.41 → (5~6월) 3.35 → (7~9월) 2.85 → (10~11월) 2.21
석유제품		· 여행수요 확대·EU의 러産 석유 금수조치에 따른 대체 수요 예상되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유가는 전년비 소폭 하향세 전망* * (WTI) ('22) 95.22 → ('23) 86.36, (브렌트) ('22) 101.48 → ('23) 92.36 (美EIA) * (WTI) 92, (브렌트) 98 (골드만삭스) / (두바이유) ('22)100.75 → ('23상)94.7(에경연)
	소폭감소	
석유화학		· 에너지價 상승, 친환경·ESG 기조 강화, 중국 등 자체 생산설비 증설로 가격경쟁 심화
	소폭감소	· 각국 제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요산업 업황 둔화 우려로 수출감소 우려
자동차		· 반도체 공급 병목 완화,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생산 확대는 호조 요인, FTA 활용, 중고차 수입 수요 등 기회요인을 통한 수출증대방안 가능 * (이스라엘) FTA발효로 車관세 7% 철폐, (카자흐) 중고차 수요 ↑, 러 우회수출 증가
	소폭증가	· 다만 보호무역주의* 및 기업들의 현지생산 확대에 완성차 수출은 소폭증가에 그칠 전망 * 美 IRA-전기차 역내 생산 강제. EU-핵심원자재법, CBAM 등 통한 역외수입규제

일반기계		· 주요국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출 기회요인 부각 * (미·EU) 첨단산업(전기차·이차전지) 공급망 확충 및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확대, (중동)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 기대, (인도) ODA 중점협력국 지정 기자재 수요
	소폭감소	· 中 경기 침체 우려, 日 엔화약세에 따른 수입 감소 등 시장동향 관심 필요
철강제품		· 국별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확대는 우리 수출의 기회요인
	소폭감소	· 中 건설경기 부진, EU통상(세이프가드) 및 친환경(CBAM)규제 등 모니터링 필요
자동차부품		· 현지 완성차 생산 비중 증가와 중고차 애프터마켓 성장으로 자동차부품 수요 증가
	소폭증가	· 전기차로의 시장재편, 원자재 가격 상승, 현지생산 확대 등 불확실성 상존
디스플레이		· 폴더블폰, OLED TV, 저전력 디스플레이 등 프리미엄 제품 수출 기반 강화
	소폭증가	· TV·스마트폰 등 전방산업 수요 감소, EU 에너지효율지수(EEI) 등 하방요인 상존
무선통신기기		· 고물가 등 대외 변수로 소비심리 위축되며 스마트폰 교체수요 둔화 예상*
	현상유지	· * '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2.3억 대 추정(전년비 약보합△0.6%) (KB증권) · 프리미엄 제품군(폴더블폰), 5G 서비스 확대 지역(日·佛·印)은 수출 기회요인
선박류		· 친환경 선박*을 비롯해 크루즈선, LNG선, 방산분야 선박기자재 수요** 예상 *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에너지효율(EECI)규정, 선박탄소배출효율지수(CII) 적용 영향 ** (유럽)크루즈 관광 재개, (중국)LNG선 수요 지속 예상,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 추진
	대폭증가	· 단, 고금리에 따른 투자 보류 및 발주량 감소, 인력 부족 등 불확실성 우려 * '23년 세계신조선발주량 2,200만CGT(△37%), 발주액 610억불(△39%) 전망 (수은)
컴퓨터		· 디지털 전환 지속으로 기업용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서버 수요 지속 전망
	소폭감소	· 신규 CPU 출시 지연, 경기 침체로 개인용 PC, 노트북 수요는 소폭둔화 예상
섬유류		· 방역 정책 전환과 원화 약세로 기능성 섬유 및 패션의류 소비 유지 예상
	현상유지	· 구매력 감소, 원자재 가격상승,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 우려
이차전지		· 글로벌 전기차 산업 성장으로 이차전지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EU) 신규 내연차 판매금지('35~), (동·서남아) 전기차 산업 육성 및 장려
	대폭증가	· 주요국 공급망 내재화*로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 비율이 늘면서 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장비 수출은 증가 예상 * (美) IRA 법안으로 북미권역 내 밸류체인 구축, (中) 자국 내 밸류체인 확보 완료
가전		·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구매 지연, 저가 제품 선호로 수출감소 예상
	소폭감소	· 스마트홈, 에너지 고효율 제품, 프리미엄 제품 등 틈새시장 수요 관심 필요
화장품		· 한류 효과로 한국산 화장품 관심 증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호조 예상 · K-Beauty 브랜드 의존보다는 시장에 특화*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
	현상유지	· * (EU) 절약소비로 가격경쟁력 중요, (日) 중저가 색조화장품, 셀프 네일제품 선호, (中) 프리미엄화, 지방도시 공략, (印) 전자상거래 유통 확산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자료 : KOTRA (KOTRA 해외지역본부 의견 종합)

◇ 2023년 지역별 주요 품목 수출 전망 ◇

품목명	2022년 수출 전망											
	품목 종합	북 미	중 국	E U	일 본	아 세 안	대 양 주	인 도	중 동	중 남 미	C I S	아 프 리 카
지역 종합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제품												
석유화학												
섬유류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가전												
자동차부품												
컴퓨터												
석유제품												
선박류												
화장품												
이차전지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자료 : KOTRA (KOTRA 해외지역본부 의견 종합)

## V 지역별 시장 여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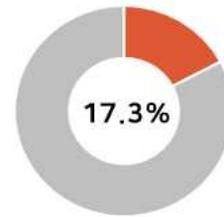
### 1 북미

◆ 북미지역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나,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으로 '23년 한국의 對북미 지역 수출 기회는 확대될 전망

【 한국의 대북미 수출 추이 】



【 한국의 대북미 수출 비중('22년, %) 】



## 가. 2023년 시장여건

### ① 미국

□ (경제성장) 美 연준의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 및 높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23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1%에 그칠 전망(IMF, '22.10월)

\* 美 경제성장률('22년 → '23년, %): (IMF) 1.6 → 1.0, (OECD) 1.8 → 0.5

○ (금리) 장기목표 인플레이션 2% 도달을 위해 고강도 긴축정책(금리인상) 지속 예상

\* 美 기준금리 상승 추이(%): ('22.1월) 0.25 → (3월) 0.50 → (5월) 1.00 → (6월) 1.75 → (7월) 2.50 → (9월) 3.25 → (11월) 4.00 → (12월) 4.50 ('22년 총 425bp 인상, 1bp=0.01%)

○ (소비) 근로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비 여력 감소 및 추가 금리인상 예고로 소비는 둔화추세

\* 美 민간소비 전망(%): ('21년) 8.3 → ('22년) 2.6 → ('23년) 0.6 (OECD, '22.11월)

\* “미국 '22년 1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0.2로 지난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기대지수 또한 80을 밑돌아 경기 침체 가능성 지속 우려” (美 Conference Board)

○ (고용) 고용시장 수급불균형으로 구인난이 지속됐으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팬데믹 당시 이탈 노동자들의 복귀) 등으로 노동시장은 다소 안정될 전망

- (정책) 첨단기술 및 친환경 분야에서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추진
  - (미래기술 개발 투자) 바이든 행정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선점을 위한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CHIPS)’ 공포(8.9일)
    - \*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기술연구 및 기반 확충 등에 총 2,800억 달러 예산 투입 (그중,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 및 연구개발에 5년간 총 527억 달러 편성)
    - 반도체 과학법 일환으로 생명공학·바이오 제조혁신 이니셔티브 선언\*(‘22.9월) 및 국가 바이오 방어전략 이행계획\*\* 발표(‘22.10월)
      - \* 미국에서 개발한 모든 것이 자국 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공급망 구축을 위한 그린(농식품)·화이트(에너지)·레드(보건의료) 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 추진
      - \*\* 바이오 안보 강화를 위해 조기 위협감지 시스템 작동, 전염병 영향 감소 연구 등 수행
  - (친환경정책 확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발효(‘22.8월) 등
    - 에너지 안보, 경제 탈탄소화, 의료보건 비용부담 완화 등 추진 (전체 예산의 80%인 3,690억 달러를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
      - \* △전기차·에너지효율 제품 구매 기업(가정)에 보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지급 등 친환경 인센티브 대거 포함
      - \* “향후 10년간 총 7,370억 달러 수익과 4,370억 달러 투자 확대로 약 3,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 (美 민주당)

## ② 캐나다

- (경제성장) ‘23년 캐나다는 소비위축 및 고금리에 따른 기업투자 감소 등 영향으로 0.9%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Bank of Canada, ‘22.10월)
  - \* 캐나다 경제성장률 전망: (‘22년) 3.3% → (‘23년) 0.9% → (‘24년) 2.0%
- 고물가·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우려되며, 긴축정책을 통한 환율 방어 및 물가 안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경제성장 둔화 전망
- (정책) ‘2050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및 투자 확대
  - ‘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5년 대비 40% 감축, ‘50년까지 순배출 제로(0) 목표
    - \*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 제로 차량 판매를 ‘26년까지 경량차의 최소 20%, ‘30년까지 최소 60%, ‘35년까지 100%가 되도록 의무 시행(캐나다 연방정부)

## 나. 2023년 수출환경

### □ (산업환경) 기후변화 대응산업 및 자동화 시스템(로봇) 시장 확대 전망

- (기후변화 산업 확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에너지·전기차·항공 등 산업별 친환경 인센티브가 부여됨에 따라 그린 산업 중심으로 기업투자 집중

#### 【 IRA 청정에너지·기후분야 예산추정치 】

IRA 주요 내용	예산 추정치 ('22~'31, 억불)
청정전력 세액공제	1,610
대기오염, 유해물질, 교통, 인프라	400
개인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370
청정제조 세액공제	370
청정연료 및 친환경차 세액공제	360
보존, 농촌 개발, 임업	350
건물 효율, 전기화, 에너지부 보조금	270
기타 에너지·기후지출	180

#### 【 IRA 내 인센티브 주요 세액공제 조항 】

- ▷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 전기차 구매 납세법인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
- ▷ 첨단제조생산(배터리·태양광·풍력·수소) 세액공제
- ▷ 청정제조투자 세액공제
  - 전기차·재생에너지·배터리 등 제조시설 설치(확장)시 투자금액의 6~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제공
- ▷ 원전 세액공제

\*자료원: 美의회예산처('22.9월), 산업통상자원부('22.11월)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22.11월)

- (로봇 도입 확산) 임금 상승 및 구인난 극복을 위한 **코보틱\*** 시대 전환 가속화

\* 코보틱(Cobotics):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업무 수행 방식

- 미국의 대중 견제에 따른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추진으로 산업 전반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확산되며 **로봇 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
- \* '22.2분기 북미 로봇 발주량은 12,305대(전년동기대비 +25%)로 사상 최대치 기록, 3분기 연속 신기록 경신 (美 첨단자동화협회)

### □ (통상환경) 대중 견제 기조 확산 및 동맹국 중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 동맹국 간 협력을 통해 공급망 위험을 최소화하는 **'프렌드쇼어링'** 제안

- 지정학(지역경제·안보협정), 산업(제조업육성·기술투자·정부조달), 무역투자(관세·수출통제·투자감시) 등을 포함한 정책 실현

\* 현재 △중국 견제, △해외 투자 감시, △수입규제 집행강화 등 관련 법안 계류 중

- 리쇼어링(Reshoring)과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탈중국 움직임 활발**

- 美 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 및 제조업 투자 지원,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제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기업 리쇼어링을 가속화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 [증가 예상 품목] 이차전지, 선박류, 자동차,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이차전지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RA 법안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개편으로 관련 소재 및 장비 시장 호조 전망</li> <li>주요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생산 확대가 예상되며, 현지 공장 설립 전까지 수입 수요가 확대될 전망</li> </ul>
선박류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규제 강화로 '25-'26 대규모 선박 교체인 '슈퍼사이클' 예상</li> <li>공급망 문제 해소로 기존 선박의 용선 수요 및 신규 선박의 건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캐나다 해운업체 S사)</li> </ul>
자동차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가 자동차(전기차·고급브랜드) 인기로 수요 확대가 기대되나, 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응 필요</li> </ul>
자동차부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성차 생산 확대로 관련 부품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나, USMCA 발효에 따른 원산지 규정 강화로 증가폭은 제한될 전망</li> </ul>
평판디스플레이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세대 기술(투명 OLED·폴더블·저전력 제품)을 접목한 한국산 신제품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코로나 특수 종료로 TV 등 전방산업 수요는 감소 추세</li> </ul>

###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철강제품, 일반기계, 반도체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나 자국 제품 우선 구매 정책, 수요 감소에 따른 제품 가격하락 등 하방 요인 상존</li> </ul>
일반기계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프라 투자 확대, 중단 프로젝트 재개, 에너지 정책 추진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 증가할 전망이나 자국제품 우선 구매 정책은 제약요인</li> </ul>
반도체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선통신·자동차분야 및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반도체 수요가 견조할 전망이나,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 강화는 우려요인</li> </ul>

### □ [감소 예상 품목] 석유화학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화학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플라스틱 정책으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둔화할 전망</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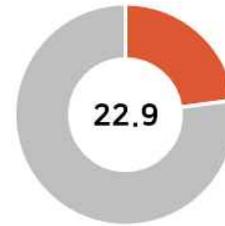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 2 중국

◆ 수출 경기 상방요인(제로코로나 정책 완화·인프라 투자 확대)과 하방요인(내수 침체·미중 갈등 등)이 혼재하며 '23년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둔화될 전망



【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22년, %) 】



### 가. 2023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경기 하방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시 '23년 연간 4%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 '23년 中 경제성장률(%): (IMF)4.4, (골드만삭스)4.5, (중국사회과학원)4.5, (OECD)4.6

○ (생산) 주요 도시 봉쇄 조치로 산업 생산이 부진\*하며, 코로나 재확산, 미중 갈등, 러-우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물류난·공급망 차질 재연 가능성

\* '22.11월 중국 제조업 PMI는 48.0으로 2개월 연속 기준치(50) 하회 (中 국가통계국)

○ (투자) 제조업·인프라 투자는 견조하나, 부동산 침체 등 위험요인 상존

- 산업고도화, 탄소중립화, 경기부양책 추진에 힘입어 제조업·인프라 투자 확대

-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나 중국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조치 선언으로 부동산 억제정책은 다소 완화될 전망\*\*

\* '22.1~10월 업종별 투자증감률(전년동기대비, %): (인프라)8.7, (제조업)9.7, (부동산) △8.8

\*\* 부동산기업의 주식시장 자금조달 허용 등의 지원대책 발표(中증권감독관리위원회, 11.28)

○ (소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소매판매 둔화 우려

\* '22.10월 中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0.5%로, 5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中국가통계국)

- (정책) 내수 회복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 정상화에 집중
  - (내수시장 부양)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미중 디커플링 심화 등 외부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 추진
  - (경제 정상화 노력)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안정 패키지 정책'\* 추진('22.5월 국무원 정식 발표)
    - \* 경제안정 패키지 정책분야(6개) : ①재정정책, ②화폐금융정책, ③투자 안정화 및 소비 촉진, ④식량·에너지 안전보장, ⑤산업사슬·공급망 안정 보장, ⑥민생기본보장

## 나. 2023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첨단·녹색산업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
  - (디지털 전환) 중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 육성 정책 시행
    - (新SOC 추진) 첨단 기술의 산업 융합 등 '디지털 강국'으로의 전환 노력

### 【新SOC 추진 분야】

인프라 구분	정책 목표 ('25년 내)	'20~'25 투자금액(비중)
▷ 산업 인터넷	지역·산업별로 인프라 구축	99,299억 위안(35.3%)
▷ 고속·도시철도	연평균 5,000km 건설	66,082억 위안(23.5%)
▷ 빅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센터 랙(RACK) 220만개 구축	33,124억 위안(11.8%)
▷ 5G 네트워크	기지국 500만개 건설	18,901억 위안(6.7%)
▷ AI(인공지능)	시장규모 연간 45%씩 성장	15,610억 위안(5.5%)
▷ 특고압 송전설비	40,000km 건설, '35년한 송전능력 3배 강화	4,128억 위안(1.5%)
▷ 전기차 충전소	매년 45만개 충전소 증설(공공 15만/개인 30만)	3,418억 위안(1.2%)

- \* 자료원: 中 현지 연구기관 자료 종합해 KOTRA 정리('22.8월)
  - ('디지털 경제 5개년 발전 계획' 발표) '25년까지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GDP 내 비중을 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제시
    - \* △디지털과 실물경제 융합, △대외무역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관리감독 강화 등 시행
  - (녹색산업) '306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등 탄소 저감 정책 본격화
    - \* '30년을 정점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소비구조 전환과 에너지 사용의 전기화가 집중 추진될 전망
- (통상환경) 기술 자립,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통해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응
  - 대외적으로는 RCEP 발효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공급망 국산화를 통한 자국 중심의 GVC 재편 추진
    - \* 특히, 中 미래산업인 반도체, 신에너지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이 강화(한·미·일·대만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추진 등)되며 중국 내 위기감 고조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 [유지(보합) 예상 품목]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무선통신기기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부진으로 소비자들의 휴대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어 주요 브랜드의 출하량은 감소 추세</li> <li>* '22.1~9월 중국 내 휴대폰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math>\Delta</math>21.5% 기록</li> <li>* 주요 기업이 '23년 생산량 및 영업이익 목표를 하향 조정 중</li> <li>○ 단, 고급 휴대폰(폴더블폰) 인기로 관련 부품 수요는 견조할 전망</li> </ul>
석유화학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경우, 내수시장 회복이 기대되며 석유화학 수입 수요 또한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li> <li>○ 다만, 중국 자체 석유화학 생산능력 향상 및 파라크실렌(PX) 품목 자급률 제고로 수입 수요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전망</li> </ul>

### □ [감소 예상 품목] 반도체, 일반기계, 철강제품, 컴퓨터, 화장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반도체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모리 반도체 수요기업(빅테크·스마트폰)의 탈중국 추세 가속화</li> <li>○ 최대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의 발주 규모 감소</li> </ul>
일반기계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우 사태, 공급망 위기, 원자재가 급등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됐으며, 경기회복 전까지 산업기계 수요는 감소할 전망</li> <li>○ 중국의 자국산 생산발전 정책으로 수입 수요는 줄어들 전망</li> </ul>
철강제품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정책 및 부동산 부진 등으로 '23년 철강 경기는 나아지지 않을 것” (中 야금공업정보표준연구원장)</li> <li>○ '23년 자동차 판매 부진이 예상되며, 中 자동차 제조사의 주요 철강 부품 교역국인 한국도 영향을 받을 전망 (中 자동차협회)</li> <li>○ 단, 경기부양책인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 가동'은 호조 요인</li> </ul>
컴퓨터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특수 종료 및 경기 침체로 컴퓨터 판매는 부진할 전망</li> <li>* 대부분 PC 관련 기업이 생산보다 재고 처리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li> </ul>
화장품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 정책 강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한류 효과 감소로 한국 화장품 수요는 감소 추세</li> <li>* 자국 브랜드 화장품 시장 비중은 '18년 30%→'21년 58%로 확대</li> </ul>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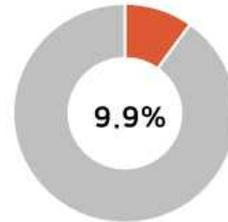
### 3 EU

◆ 경기 부진에 따른 역내 생산·소비·투자 위축 및 EU의 수입규제·정책 강화에 따라 '23년 한국의 對EU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둔화될 전망

【 한국의 대EU 수출 추이 】



【 한국의 대EU 수출 비중('22년, %) 】



## 가. 2023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통화긴축 가속화로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며 '23년 EU 경제성장률은 0.7%로 둔화될 전망(IMF, '22.10월)
  - \* 특히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탈리아 중심으로 경기침체 우려 고조 (국가별 GDP 전망치(IMF): 독일  $\Delta$ 0.3%, 이탈리아  $\Delta$ 0.2%, 프랑스 0.7%, 스페인 1.2%)
- (소비)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회복이 지연될 전망
  - \*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12개월 연속 증가하며 '22.10월 10.7%로 사상 최고치 경신, 이는 ECB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의 5배에 달하는 수준(ECB, '22.10월)
  - '22.9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는  $\Delta$ 28.8로 사상 최저치 기록, 소비심리 심각
    - \*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22.1월) $\Delta$ 8.5→(4월) $\Delta$ 16.9→(7월) $\Delta$ 27.0→(9월) $\Delta$ 28.8(역대 최저)
- (생산)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신규주문 감소, 에너지·원자재 수입 물가 급등, 중간재 공급 차질\* 등 하방 압력 확대로 생산 정체 지속\*\*
  - \* 설문 결과, 獨 산업계 응답자의 65.8%가 원자재 부족을 경험 (Ifo경제研, '22.9월)
  - \*\* '22.10월 유로존 제조업 PMI는 46.4로 '20.5월 이후 최저치, 9개월 연속 하락세 기록

#### 【 EU 경기 하방리스크 】

- ▷ 공급망 병목현상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 지속, EU의 천연가스 수급 차질,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 유럽 경기 불확실성 여전
- \* 러시아의 對EU 천연가스 공급 중단시, 향후 1년간 EU GDP 손실률은 최대  $\Delta$ 2.7%에 달할 것(IMF, '22.7월)

- (정책) EU 경제회복기금(RRF) 집행 순항, 기금 연계 민간·공공 투자 지속
  - 경제회복기금(RRF) 총액의 16%인 1,155억 유로 집행 완료('22.11월), '26년까지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관련 프로젝트(총 2,800여개) 발주 예정
    - 친환경(신재생에너지·모빌리티) 및 디지털(5G, 산업·공공행정 디지털화) 중심으로 추진
  - \* (벨기에) 지속가능한 운송·에너지 부문에 €23억 투자, 780여건 공공프로젝트 입찰 중
  - \* (오스트리아) 공공행정 디지털화 정책 '디지털 오스트리아'에 €18.3억 투입 중
  - \* (그리스) 팬데믹으로 지연된 '5G 구축 공공프로젝트' 재추진 중
- (통화정책)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인플레이션\*을 ECB 중기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 금리인상 예고\*\*, 고강도 긴축 행보 가속화
  - \* ECB 유로존 인플레이션 전망치: ('22년) 8.1% → ('23년) 5.5% → ('24년) 2.3%
  - \*\*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22.9월)

## 나. 2023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 수요 증가하나, 경기둔화에 따른 역내 생산·소비·투자 위축으로 對EU 수출 여건은 악화
  - EU 집행위, 역내 에너지 안보 향상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방안을 담은 'REPowerEU' 세부 계획 발표 ('22.5월)
    - \* 에너지 절약, 연료 수입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녹색 전환 가속화를 주요 목표로 '27년까지 약 €2,100억 규모 투자 예상
    - 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보급 확대 등으로 관련 기자재 수요 늘어날 전망
      - \* 태양광 발전 용량 '25년 320GW까지 추가 증설('21년 기준 158GW), 향후 5년 내 역내 히트펌프 누적 보급량 1,000만 개 달성 목표(현재의 2배 수준)
  - 반면, 러-우 사태 여파에 따른 에너지 위기 및 물가 상승이 EU 산업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며 역내 중간재(철강·석유화학) 수입 수요는 둔화 전망
    - \* 한국의 對EU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58.3%로 높아 역내 산업 위축 시 수출 타격이 큰 편(PWC Korea, '22.8월)
    - 다만,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이 점차 해소되는 추세('22년 하반기 이후)이며, 인플레이션 및 에너지 리스크 완화 시 역내 생산량은 회복될 가능성

□ (통상환경) EU 진출기업 무역장벽 강화

- (역외보조금 규제안 추진) EU 이사회 ‘역외보조금 규제법안(FSR)\*’ 최종승인 (‘22.11월), ‘23년 중 본격 추진 예상

\* 국가보조금 수혜를 받은 역외기업에 역내 M&A 및 공공입찰 시 사전 신고 의무 부여, 신고 미수행 및 허위 자료 제출 시 매출액 비례 과징금 부과

【 역외보조금 규제법안 적용대상 】

기업결합	공공조달
- 참여기업 한 곳 이상 EU 내 매출액 5억 유로 이상	- 공공조달 가액 2억 5천만 유로 이상
- EU 제외한 역외국의 보조금이 최근 3년간 5천만 유로 이상	- 입찰 시 국가 재정 기여액이 국별 4백만 유로 이상

-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운용) EU 회원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합의(‘22.12월), ‘23년 10월 시범운용 개시 예정

\* 수입품을 대상으로 제조 시 배출된 탄소량 추정치를 EU-ETS와 연동, 배출량에 따라 인증서 구매 후 관할 당국에 제출하는 제도

\* CBAM 대상품목에 대한 EU 배출권거래제(ETS) 무상할당은 점진적으로 폐지 예정

【 CBAM 잠정합의(‘22.12.12) 주요 내용 】

- ▷ 대상품목: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스크류, 볼트 및 일부 원료제품 추가 가능)
- ▷ 적용시기: ‘23.10.1부터 전환기간(준비기간) 개시, 본격 시행은 3~4년 뒤
- ▷ 탄소배출량 보고범위: 원칙적으로 직접배출(특정 요건 하에서 간접배출 포함)

\*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22.12월)

- (배출권거래제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ETS)\*’ 적용 분야 확대

\* ‘30년까지 ETS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05년대비 61%, 연 감축 비율은 4.2%로 설정

- 건축 및 운송(육상·해운) 분야에 신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적용(집행위 ‘26년 도입제안)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 [증가 예상 품목] 선박류, 자동차부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선박류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O의 황산화물 환경규제 및 EU 탈탄소 기조로 친환경 선박 기자재 수요가 확대될 전망</li> <li>* 친환경선박 기자재 및 디젤선박 부품 수요 꾸준한 편(對독일 선박수출사)</li> <li>○ 對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부유식 LNG 가스 터미널 건설로 LNG 선박 및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 예상</li> </ul>
자동차부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망 문제로 신차 리드타임이 길어지며 중고차 시장이 확대, A/S부품 중심으로 수입 수요 증가 예상</li> <li>* 차량연식이 높아져 사후관리용 부품 수요 확대(헝가리 차부품 바이어)</li> </ul>

###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일반기계, 자동차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 정책 등이 추진되나, 러-우 사태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 불안요인 상존</li> <li>○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의 대규모 투자로 설비수요 증가 기대</li> <li>* (스웨덴) 노스볼트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라인 건설에 따른 설비수요 증가</li> <li>* (헝가리) 전기차배터리 제조 대규모 산업단지 생성, 중국 CATL 등 글로벌 제조업체의 對헝가리 투자 지속 확대</li> </ul>
자동차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플레이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시장 환경이 악화 되었으나, 친환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 구매지원 정책에 따라 아이오닉, EV6 등 국내 브랜드의 전기차 판매는 지속될 전망</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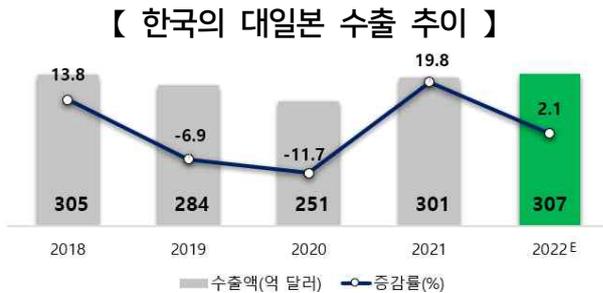
### □ [감소 예상 품목] 철강제품, 석유화학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재 가격하락이 '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2년 재고분으로 철강 수요는 하반기에 회복될 전망</li> <li>○ 탄소국경조정제, 철강 세이프가드 등 수출 제약요인 상존</li> </ul>
석유화학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내 생산업체 공급망 문제로 역외 대체재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고품질의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선호도가 높으나, 수출 단가 감소세 및 가격경쟁 심화로 수출은 감소할 전망</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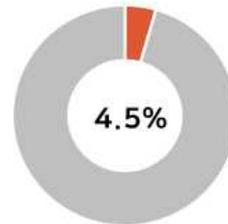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 4 일본

◆ '23년 한국의 對일본 수출은 원자재 가격상승 및 엔저에 따른 수입부담 증가에 따라 주력품목(철강·반도체 등) 중심으로 둔화될 전망



【 한국의 대일본 수출 비중('22년, %) 】



### 가. 2023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23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22년 1.7%과 비슷한 수준인 **1.6% 전망**(IMF, '22.10월)
  - \* 日 경제성장률('22년 → '23년, %): (IMF) 1.7 → 1.6, (OECD) 1.6 → 1.8
- (물가)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엔화 가치 하락 (엔저) 등으로 물가는 지속 상승\*하나, 증가세는 점차 완화될 전망\*\*
  - \* 日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대비%): ('22.1월)0.5→(4월)2.5→(7월)2.6→(10월)3.7 (日총무성)
  - \*\* 日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22.4Q)2.4%→('23.1Q)2.1→(2Q)1.6 (日경제연구센터, 한국은행)
- (소비) 고물가·고환율 기조는 지속되나, 정부의 가계지원책·소비환기책 추진, 입국 규제 완화\*('22.10월 개인여행 허용) 등으로 **1% 전후의 성장세 예상\*\***
  - \* 일본 방문객 추이: ('22.1월)1.8만명 → (7월)14.5만명 → (10월)49.9만명 (日 관광청)
  - \*\* '23년 日 개인소비 성장률 전망: (일본총연)1.3%, (다이와총연)1.0%, (MUFG)0.8%
- (고용) 경제활동 재개로 제조업·서비스업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팬데믹 이후 발생한 인력난으로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문제는 심화
  - \* 기시다 정권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발표('22.6월), 4대 중점 투자 분야 중 '인재' 포함(△임금인상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부여, △재취업 지원 등)
- (환율)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금융완화정책 유지로 美·日 간 금리차가 확대되며 엔화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
  - \* 달러/엔 환율전망: ('22.3Q)138 → (4Q)145 → ('23.1Q)143 → (2Q)142 → (Q)145

□ (정책) 고물가, 엔화 가치 하락에 대응한 ‘종합경제대책’ 발표(‘22.10.28)

- 총 사업규모(민간투자 포함) 71조 6천억 엔 중 경제대책 재정지출에 39조 엔 편성
- \* 日 정부, “경제대책 성공 시 ’23년 이후 국내총생산이 4.6% 올라가는 효과를 거둘 것”

【 종합경제대책 예산내역(안) 】

5대 중점 대책	재정 지출	세부 내용
물가상승·임금인상	12.2조 엔	- 전기료·가스료 경감, 임금인상 중소기업의 업태전환 지원 확충 등
국민 안전·안심	10.6조 엔	- 코로나 백신 접종 체제 정비, 북한 미사일 대응 등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	6.7조 엔	- 부업을 수용하는 기업 지원, 재교육·이직 지원제도 신설, 탈탄소 및 스타트업 지원 기금을 각각 창설, 신생아 1명당 10만엔 교부 등
엔저를 활용한 ‘벌어들이는 힘’ 강화	4.8조 엔	- 지역 관광 기획 지원,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거점 확보, 해외시장 개척 목표 중소기업 1만개 사 지원 등
향후 대응	4.7조엔	- 코로나 및 고물가 대책 예비비 증액, 우크라이나 정세 대응 예비비 신설

**나. 2023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DX(Digital Transformation)·GX(Green Transformation) 추진

- (디지털 개혁 추진)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 발표(‘22.1월)
- \* △준공공분야(의료·교육 등) 디지털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행정 효율화, △디지털 보급확대, △인재육성 및 확보, △행정절차 온라인화 △데이터 국제유통 등

\* 일본 DX시장 투자금액은 ‘20년 1.4조 엔 → ‘30년 5.2조 엔으로 3.8배 성장 전망(후지키메라총연, ‘22.3월)

- (탈탄소화 계획 수립) GX(Green Transformation) 관련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향후 10년 로드맵\* 구체화 예정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탈탄소를 위한 경제·사회·산업구조 변혁 등이 목적 (민·관 150조 엔(정부는 20조 엔 지원) 규모 투자 추진)

□ (통상환경) IPEF 활용 한-일 공급망 강화 기회 모색

- (IPEF 협상 예정) 4개 분야(무역, 공급망, 인프라, 탈세·반부패)를 중심으로 참가국 (‘22.11월 기준 14개국 참여) 간 협력 강화

\* IPEF(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다자경제협력체

- 일본 정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경제안보법)’ 제정(‘22.5월)
- \*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중요물자(반도체·희귀금속 등)의 공급망 강화, 특정 중요기술 연구개발 등 추진 (’23년부터 단계적 시행)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 [증가 예상 품목] 이차전지, 선박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이차전지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G에너지솔루션-Isuzu(상용차기업) 간 1조원대 공급 계약체결 등으로 한국 배터리 메이커가 부각되며 시장경쟁력 확대 기대</li> </ul>
선박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건조 중인 암모니아선을 '23년 말 일본으로 인도 예정, 추가로 LNG선 1척을 '24년 말까지 인도할 예정</li> </ul>

###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화학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 가격 상승, 반도체 공급 차질로 자동차용 내외장재 및 플라스틱 제품 수요가 위축되었으나, '23년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석유화학 수출은 보합세 예상</li> </ul>
무선통신기기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G 통신망 구축 확대로 5G 통신장비·단말기 수요 증가 전망</li> <li>* 삼성전자, 일본 1위 통신사 NTT도코모와 5G 장비 공급계약 체결 ('21.3월), 장비 공급 확대 결정('22.11월)</li> <li>○ 단, 고물가 기조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 가능성은 하방요인</li> </ul>
평판디스플레이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침체에 따른 OLED TV 등 고가 가전제품 수요 감소로 LCD, OLED 출하량 감소, 평균 판매단가(ASP) 하락</li> <li>○ 일본기업의 공장 자동화시스템 도입 확대로 관련 디스플레이 수요는 견조</li> </ul>

### □ [감소 예상 품목] 반도체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반도체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PC·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D램 등) 수요 감소하며, 재고 물량 증가 추세</li> <li>○ 단, 전기차, IoT,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등) 수요는 견조할 전망</li> </ul>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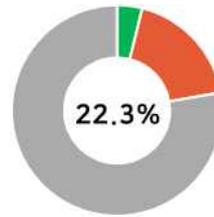
## 5 동남아대양주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으로 아세안이 수혜지역으로 부상, 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23년 한국의 對 동남아대양주 수출은 아세안 지역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

【 한국의 대아세안·대양주 수출 추이 】



【 한국의 대아세안·대양주 수출 비중('22년, %) 】



- 아세안 비중: 18.4%
- 대양주 비중: 3.9%

### 가. 2023년 시장여건

#### ① ASEAN

□ (경제성장)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시행, 통상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23년 아세안<sup>5</sup> 경제는 4.9% 성장 전망

【 ASEAN 주요국 GDP 성장률 전망(IMF, '22.10월) 】

구분	ASEAN <sup>5</sup>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2021년	3.4	3.7	1.5	2.6	5.7	3.1
2022년	5.3	5.3	2.8	7.0	6.5	5.4
2023년	4.9	5.0	3.7	6.2	5.0	4.4

- (물가) 국제식품·원유가격은 고점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지역 물가는 상승 추세(AMRO, 주아세안 대표부, '22.10월)
  - \* ASEAN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전년대비): '22년 7.6% → '23년 4.0% (AMRO, '22.10월)
- (투자) 세계 개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노력
  - (인도네시아) FDI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계획('23년 투자목표: \$892억, '22년대비 +16.6%)
    - \* FDI 유치 순위: ①노동집약적·수출지향적 산업, ②첨단산업(제약·반도체 등), ③신수도·인프라 등
  - (태국) 태국 투자청 '2023~2027년 신규 투자촉진전략' 발표('22.10월)
    - \* 장기투자자 및 태국 이전 기업(연구·제조시설 등)에 법인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 제공
  - (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 외국인투자법(FIA), 소매업자유화법(RA) 등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법안 개정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 시도

□ (정책) 친환경 정책 및 4차 산업 혁신 정책 중점 추진

○ (친환경 정책)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확대

- \* (베트남) '국가기후변화전략 2050' 마련('22.4월) (온실가스 감축목표 '30년까지 43.1%, '50년까지 0%)
- \* (인도네시아) '2021 온실가스 로드맵' 개정안 발표 (1안: 자체감축 / 2안: 국제협력)
- \* (필리핀) 재생에너지 점유율 '30년까지 총발전량의 39.96%, '40년까지 55.8% 증가 목표

○ (4차 산업 혁신정책) 제조업,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등 역량 강화 추진

- \*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중장기 계획(Malaysia Digital Economy Blueprint) 발표('21.2월), 국가 디지털 네트워크에 44.5억 달러 투입, '23년까지 국제 해저케이블망 연결 등 추진
- \* (필리핀) 'DICT Press Briefing 2022' 발표, (△고품질 인터넷망 연결, △통신인프라 구축 등)
- \* (싱가포르) 'Manufacturing 2030' 발표, '30년까지 제조업 50% 성장 목표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각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금리인상) 시행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에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나,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침체가 우려

- \* '22년 연간 기준금리 인상폭: (인도네시아) 3.50% → 5.25% (말레이시아) 1.75% → 2.75%, (필리핀) 2.00% → 5.50%, (태국) 0.50% → 1.25% ('22.12.16일 기준)

② 대양주

□ (경제성장) 주요 수출품목인 원자재의 가격 안정화가 예상되며 '23년 호주,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은 1.9%로 동일하게 전망(IMF, '22.10월)

- \* IMF 경제성장률 전망('22.10월, %): (호주)'22년 3.8→'23년 1.9, (뉴질랜드) '22년 2.3→'23년 1.9

○ '22년 급등한 원자재 가격 하락세\*, 호주-중국 갈등 장기화 등이 경기 하방요인

- \* '22.11월 가격증감률(전월대비, %): (WTI)△6.9, (브렌트유)△9.9 (농산물)△1.7, (구리)7.9 (국제금융센터)

□ (정책) 민생안정 및 산업육성 정책으로 국가 경제성장 도모

○ (민생안정 정책 시행) 소외계층 지원, 가계지출 완화 등에 예산 투입

- \* (호주)기본 보장제도(의료·복지·교육) 강화, 세수확보 등/(뉴질랜드)유류세·도로요금 인하 등

○ (산업육성) 호주, 기술이민 비자 확대 등을 통한 노동력 문제해결 및 기업 경쟁력 확보

○ (통화정책)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및 가계 부채 증가,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대응해 내수경제의 균형 달성을 위한 금리 인상 지속

## 나. 2023년 수출환경

### □ (산업환경) 산업 인프라 확충 및 바이오테크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 ○ (공공 인프라 구축) 교통·주거·건설 등 제조업 중심의 수요 확대

- \* (말레이시아) ‘광역 수도권 개발’을 위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시행
- \*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 주도의 인프라·건설 시행, ’31년까지 연평균 8.2% 성장 전망
- \* (호주) ’23년 인프라 투자액은 역대 최고치인 520억 호주달러(328억 달러)에 이를 전망 (호주 GDP의 20% 이상 기여), 핵심광물 기술개발로 핵심 원자재 공급국가 도약 목표

#### ○ (바이오테크 투자 확대)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 경쟁력 확보

- \* (인도네시아) Making Indonesia 4.0 주요분야인 제약산업은 연평균 5.5% 성장이 전망되나, 국산제품사용요건(TKDN) 규제강화 및 의약품 할랄인증 표기 의무화(’26년~) 등 무역장벽 강화
- \* (베트남) 내수 의약품 80%를 목표로 ’30년까지 의약품 생산허브 도달, 백신 생산 설비 마련, 제약산업의 기간산업화 등 추진
- \* (호주) 바이오테크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 R&D 세금 인센티브 추진 및 매년 1,000개 기업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총 10억 호주달러(약 6억 달러) 투자

#### ○ (에너지 전환) 탈탄소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확대

- \* (호주) ’22.5월 신정권(노동당) 출범, ’30년 탄소배출 감축목표 기존 26~28%에서 43%로 상향조정 / 전기차 비용·부가세·관세 완화, 청정교통기금 추가예산 배정 등
- \* (뉴질랜드) ’35년까지 운송수단(트럭·선박·항공 등) 탈탄소화 계획

#### ○ 단, 가파른 생산비용 상승 및 불확실한 국제정세 등 산업침체 요인 상존

### □ (통상환경) 동남아대양주 중심의 메가 FTA

- \*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미국 주도의 양대 메가 FTA의 절반 이상을 차지
- (RCEP)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FTA 발효(’22.1월), 세계 GDP 29%(25조 달러) 차지
  - \* 15개국 참여(동남아대양주 12개국(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과 한국, 중국, 일본)
- (IPEF) RCEP에 대응,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로 출범(’22.5월), 다양한 의제(공급망·디지털경제·탈탄소 및 인프라·부패방지 등)에 대한 협력 강화 전망
- (CPTPP) 일본 주도의 메가 FTA 발효(’18.12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공동체 목표
- (호주-중국 갈등) 호주 신정부 출범(’22.5월)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 속도는 더딜 전망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① ASEAN

#### □ [증가 예상 품목] 자동차부품,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무선통신기기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부품	 (대폭증가)	○ 내수경제 회복 추세이며, 한국 자동차 기업의 현지 증산 확대에 따라 자동차부품 수출은 증가할 전망
반도체	 (소폭증가)	○ 주요 IT 제조기업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제조기지를 이전 (탈중국)함에 따라 아세안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전망
자동차	 (소폭증가)	○ (필리핀) '전기차산업발전법' 발표로 자동차 수출은 증가할 전망 ○ 다만, 한국기업의 현지 증산 확대로 수출폭은 크지 않을 전망
화장품	 (소폭증가)	○ 한류 영향으로 한국 브랜드 직영매장과 직영 판매자 증가세에 따라 한국 화장품 수입이 지속 증가할 전망
무선통신기기	 (소폭증가)	○ 내수경제 회복에 따른 소비활동 확대로 핸드폰 교체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며,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의 신규 및 저가형 휴대폰 출시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철강제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현상유지)	○ 국가별 인프라 추진 계획에 따라 철강제품 수요는 증가하나, 인도네시아·필리핀의 수입 다변화 정책, 엄격한 품질 규제로 한국산 철강 수입은 제한적일 전망

#### □ [감소 예상 품목] 일반기계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소폭감소)	○ 제조업 중심의 회복세는 지속되나, 공급망 악화로 일부 산업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 ② 대양주

### □ [증가 예상 품목] 선박, 자동차, 자동차부품, 화장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선박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해상 물류 증가로 선박 유지보수 장비·부품 수요 확대</li> <li>* '22년 3분기 對대양주 화물선 수출 대폭 확대</li> </ul>
자동차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자동차 생산차질로 신차 공급 지연, 중고차 수요 증가</li> <li>○ 신정부의 탄소감축 정책에 따른 전기차 구매 혜택 확대, 제조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전기차 수요 진작 기대</li> <li>* '22.1~10월 현대·기아차 각각 7.1%, 7.4% 점유, 증가율 확대</li> </ul>
자동차부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개발, 물류 수요 확대로 운송 트럭 및 장비의 애프터마켓 부품 수요 지속</li> <li>○ 신차, 중고차 판매 확대에 따라 부품 수요도 동시 증가</li> </ul>
화장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화장품 기업의 꾸준한 시장개척으로 인지도 및 선호도 증가</li> <li>* 현지 대형 뷰티매장, 단독 브랜드 매장, 온라인 스토어 등 판매 유통채널 다각화 진행 중</li> </ul>

###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철강제품, 일반기계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철도 등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추진</li> <li>* (호주) 한국기업(삼성물산, GS건설 등)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증가</li> <li>○ 단, 수입규제 품목에 해당, 자국 철강산업 보호는 지속될 것</li> </ul>
일반기계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진작으로 관련 기계 수요 확대</li> <li>* 배터리, 태양광 PV, 수소, 전기차 충전소 등 미래산업 정밀기기</li> <li>○ 단, 현지 법인을 두고 유통·판매하는 미국·유럽·일본 제조사가 일반기계시장을 선도</li> </ul>

### □ [감소 예상 품목] 컴퓨터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컴퓨터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물가상승이 '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트북, 태블릿 PC 등 비필수 품목 구매는 감소할 전망</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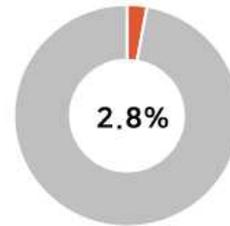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 6 인도

◆ 소비시장 활성화, 인프라 부문의 정부투자 확대 등으로 '23년 對인도 수출은 소폭 개선될 전망



【 한국의 대인도 수출 비중('22년, %) 】



### 가. 2023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물가상승, 루피화 가치 하락, 공급망 차질 현상에도 정부 투자 확대\*와 민간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6% 내외의 고성장 전망\*\*

\* '22년 인도 정부 자본지출 규모는 10조 루피(약 1,3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

\*\* 인도 경제성장률('22년 → '23년, %): (IMF) 6.8 → 6.1, (OECD) 6.6 → 5.7

○ (소비) 이연소비(Pent-up) 효과 종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인디아' 정책('15년~)에 따른 온라인 소비 확대, 젊은 인구 증가 등이 소비 확대를 견인할 전망

\* 인도 소비시장 규모 증가율(%): (FY22) 9.8 → (FY23) 6.6 → (FY24) 6.4

○ (물가) 인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큰 브렌트유 가격하락\*, 원자재 가격하락, 공급망 차질 개선으로 물가는 안정화될 전망\*\*

\* Brent유 가격 전망(US\$/bbl): ('21년) 70.89 → ('22년) 101.48 → ('23년) 92.36 (EIA)

\*\* '소비자물가지수는 '22년말 7%대에서 '23년 1분기 6%대, 2~3분기 5%로 하락할 것' (인도준비은행)

○ (환율)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루피화 가치는 하락은 '23년까지 지속될 전망

\* 인도루피/달러(평균): ('21년)73.9 → ('22.1Q)75.2 → (2Q)77.2 → (3Q)79.7 → (10월)82.3

- 다만, 인도 경제 고성장, 수출 증대, FDI 확대 등 환율 변동 완화 요인 다대

□ (정책) 인프라 부문(항만·물류·도로·철도 네트워크 조성)의 정부 투자 확대, 생산 연계인센티브(PLI) 제도 시행을 통한 자국 제조업 육성 및 FDI 유입 촉진

## 나. 2023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제조업 중심으로 핵심 산업을 육성해 경제발전을 추진
  - (제조업 육성) 제조업 GDP 기여율을 25%까지 높이기 위한 노력 확대
    - (철강) 2030-31 회계연도까지 철강 생산량 3억 톤 목표('22년 생산량: 1.1억 톤<sup>o</sup>)
    - (화학) 넓은 내수시장 및 화학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석유화학 시장 지속 성장
      - \* 인도 화학산업 '25년까지 3,000억 달러 규모로 발전 전망(인도화학협회)
    - (의약·의료) 글로벌 제약 강국(세계 백신 50%이상 생산, 세계 복제약 20% 점유) 도약
      - \* 인도 제약산업은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자체생산을 확대해 1,0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반도체)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 계획이 잇따라 발표, 시장 확대 전망
      - \* ('22.5월) 국제반도체컨소시엄, 반도체(IC 파운드리) 공장설립 추진, 약 4조원 투자 예정
      - \* ('22.7월) 싱가포르 IGSS벤처, 반도체(웨이퍼) 공장설립 추진, 4.5조원 투자 예정
      - \* ('22.8월)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 회사 PSMC, 공장설립을 위해 인도 기업과 제휴 논의중
      - \* ('22.9월) 대만 폭스콘과 인도 베단타(에너지·철강 기업), 공장 건설에 약 27조원 투자 합의 (합작 투자사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시설 등 구축)
  - (친환경산업 확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22.8월)
    - \* '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5년대비 45% 감축, 국가 에너지 50%를 비화석연료로 총량 계획
    - '그린수소정책' 달성('30년까지 그린수소 500만 톤 생산)을 위해 '그린수소 구매 의무(GHPO)' 제도 시행 예정(대량 탄소배출 산업인 정유·비료·철강업계에 영향)
  - (소매유통시장 활성화) 인도 소매유통시장 규모는 '32년까지 2조 달러로 증가해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BCG)
- (통상환경) 주요국 중심 경제협력은 강화되나, 원자재 등 수입금액 증가로 인한 무역적자 완화 및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위해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
  - (경제협력 강화) 무역촉진, 디지털경제, 탈탄소화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22.5월), 유연한 공급망 구축 기대
  - (보호무역주의 강화) 특정 품목 관세율 인상 및 강제 인증 대상 확대
    - \* 건설용 플랜트 수입 물품 관세율 현행 0~5%에서 7.5%로 인상 ('23.9.30부 시행)
    - \* 단계별 제조업 지원 정책(PMP)를 시행해 웨어러블·오디오 디바이스 수입 물품에 '26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 인상 예정 등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 [증가 예상 품목]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무선통신기기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G 통신망 구축으로 관련 기계·부품 수요 확대가 예상</li> <li>* 에어텔·지오 '24.3월까지 전국 75% 이상에 5G 서비스 도입 목표</li> <li>* 삼성전자-에어텔 5G 네트워크 구축 협약 체결('22.8월)</li> </ul>
일반기계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시장 회복으로 기계 수요 증가 전망</li> <li>○ 3D프린팅,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공작기계 수요 급증</li> <li>○ 한국의 인도 ODA 중점협력국 지정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등 수요 발생</li> </ul>
자동차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만 달러 이상 완성차 수입관세율은 100%, 4만 달러 이하 수입관세율은 60%로 직수출이 불가능하나, 전기차는 완성차 수출이 가능하며 단기간 현지 생산 불가하여 수입수요 기대</li> </ul>
평판디스플레이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정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약 12조원 투자, 관련 시장 확대될 전망</li> <li>○ 단, 휴대전화·일부 부품에 대한 관세가 15~20% 증가하며 수출 제약요인으로 작용</li> </ul>

###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컴퓨터, 석유화학, 철강제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컴퓨터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스마트교육 등) 확대로 노트북·컴퓨터 수요는 증가하나, 가전제품에 대한 BIS 수입 인증제 등은 수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li> </ul>
석유화학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화학, 유기화학, 폴리머, 그린 케미칼 중심으로 수요 확대 예상되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22.7월) 등 환경규제 심화로 제조·수입·유통·판매가 제한될 전망</li> </ul>
철강제품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내 철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 완제품에 대한 15%의 수출관세가 유지('22.5월)되면서 대인도 수출은 보합세 전망</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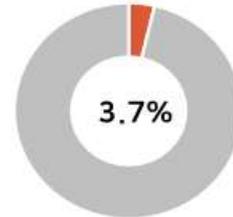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 7 중동

◆ 고유가 기조에 따른 흑자재정으로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확대되며, 관련 품목 수요 증가에 따라 '23년 한국의 對중동 수출은 증가할 전망



【 한국의 대중동 수출 비중('22년, %) 】



### 가. 2023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고유가로 인한 흑자재정, 내수 개선, 산업 다각화 정책 등으로 '23년 중동 경제성장률은 3.6% 견조한 성장 전망(IMF, '22.10월)

\* 중동 경제성장률(%): ('21년) 4.5 → ('22년) 5.0 → ('23년) 3.6 (IMF, '22.10월)

○ (유가) 과잉공급으로 유가는 '22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나, 낮은 재고수준으로 \$90 내외의 가격 유지 예상(국제금융센터, '22.12월)

\* (공급) OPEC·미국의 증산 감속, 제재에 따른 러시아 감산으로 크게 축소할 전망/ (수요) 미국과 유럽의 수요 부진으로 둔화할 전망(美에너지정보청, EIA, 국제금융센터)

【 WTI 가격 전망(\$/배럴) 】

구분	2022년			2023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WTI	95.1	101.8	88.0	86.4	85.2	87.5

\* 자료원: EIA, 국제금융센터('22.12월)

○ (물가) 긴축통화정책 및 러-우 흑해 곡물수출협정 연장으로 인한 식량 물가 안정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전망(소비자물가 상승률: '22년 14.2%→ '23년 12.4%)

□ (정책) 非석유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 新경제성장동력 발굴

\* (사우디) Vision 2030 전략모델인 '국가 산업전략' 발표('22.10월), '30년까지 1,483억 달러 규모 수출가치 창출 목표(투자 부가가치 약 3,462억 달러 전망)

\* (UAE) '산업자동화 이니셔티브' 발표('22.10월), 연 41억 달러 자국 기술 제품 수출 계획

\* (이란) '제7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2023~2028' 발표('22.9월), 연평균 8% 경제성장 추진

## 나. 2023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산업다각화(非석유부문) 본격 추진 및 흑자재정에 따른 프로젝트 활성화
  - (식량안보 정책 시행) 러-우 사태,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조로 식량안보 이슈 대두, 중동 내 식량 수급 및 수입 의존 해소 노력

### 【 주요국 식량 육성 이니셔티브 】

국가	주요 내용
UAE	식량안보전략 2051 및 Ghadan 21 액셀러레이터 이니셔티브('51년까지 식량안보지수 1위 달성 목표)
사우디	식량 및 수자원 안보 확보 노력(자국 농산물 생산 증가를 위한 대규모 지원정책 시행)
오만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전략(SARDS 2040) 수립(식품생산기업 투자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쿠웨이트	국가발전전략 비전 2035를 통한 농업 현대화 추진(디지털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스마트팜 구축 등)

-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확대) 고유가發 재정 흑자\*로 사업 추진 여건 개선
  - \* (사우디)'22上 총수익 484억 달러(사상 최대) / (UAE)'22년 원유수출 수익 전년대비 46% 증가 전망
  - '23년 중동 프로젝트 발주액 297% 증가 예상(입찰 전 포함)으로, 석유·가스 관련 프로젝트 이외에도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신도시 프로젝트 등 발주 확대 예상

### 【 주요국 프로젝트 】

구분	추진 내용
석유·가스	(카타르)북부가스전 LNG 증산, (UAE)하일엔가샤 가스전, (이라크)바스라지역 주베일 정유 공장
건설	(쿠웨이트) 공항 신설, (이라크) 모술 고속철도, (사우디) 제다 항구 확장 등
신도시	(쿠웨이트)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팜 설립 추진 등, (사우디) 네옴시티

- (석유 의존도 개선) 탈석유 대비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 시도
  - \* (UAE) 'UAE Energy Strategy 2050' 설정, '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지향
  - (사우디)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장려하며 그린 이니셔티브를 통한 '60년 Net Zero 목표

### 【 주요국 프로젝트 】

구분	추진 내용
태양광	(모로코) Xlink 프로젝트, (UAE) Noor 등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태양광 산업 확대 예상
수소	(오만) 그린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 (사우디) 네옴시티, 자푸라 가스전 블루수소, (UAE) 마스다르시티 수소허브 등
전기차	UAE, 사우디, 튀르키예 등 주요국 그린 모빌리티 이니셔티브에 따른 로드맵 수립

- (통상환경) 한국-이스라엘 FTA 발효('22.12.1일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정책\* 시행 및 비관세 장벽 강화 등

- \* (사우디) 농축산물 및 석유화학산업 관세 인상('22.6월) / (이집트) 자국 생산 가능 품목에 대한 제조공장 등록제 시행 / (알제리) 주요 수출품목 일시 수입중단('22.4월) 등
- (한-이스라엘 FTA) 첨단기술 협력, R&D 투자, 스마트산업 등 공동사업화 진출 기회 다대
  - \* 양국 교역품목의 95%에 대한 관세 즉시 및 단계적 철폐 예정, 자동차 및 부품 수혜 전망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 [증가 예상 품목] 자동차, 철강제품,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화장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이스라엘 FTA 발효('22.12월)로 자동차 관세 7% 즉시 철폐 * 이스라엘 수입시장 내 한국산 점유율 30% 차지(1위)</li> <li>○ GCC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전기차 인센티브 확대 등 장려정책으로 전기차 수요 꾸준히 증가할 전망</li> <li>○ (이란)1만유로 이하 완성차 수입추진, 한국 소형차 수입 검토중</li> </ul>
철강제품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자푸라 가스전 열병합발전소, (카타르)태양광 프로젝트, (쿠웨이트)슈웨이크 항만 추가 건설공사, (UAE)해저송전망 프로젝트 등 한국기업 수주실적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 전망</li> </ul>
일반기계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지역 건설경기 상승 및 산업다각화 추진에 따른 자동화 기기, 관련 건설장비 수요 증가</li> <li>○ 고유가로 인한 재정수지 개선으로 지출이 확대되며,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 및 제조·생산라인 확대 등에 따른 수요 다대</li> </ul>
무선통신기기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로 수출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li> <li>* '21년 중동 내 스마트폰 보급률 79%</li> </ul>
화장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류 확대에 따른 화장품 수요는 꾸준하며,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쇼핑(전자상거래) 가속화</li> </ul>

### □ [유지(보합) 예상 품목] 가전, 평판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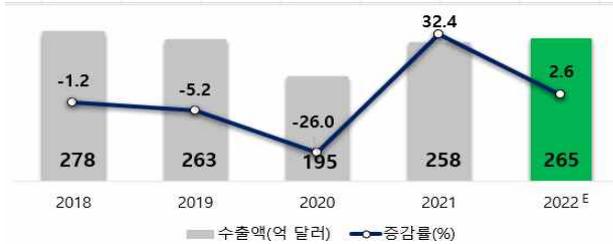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가전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장고, 세탁기는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아 판매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외 가전의 경우 프리미엄 라인은 이탈리아산, 저가 라인은 중국산 제품 수요가 높은 편</li> </ul>
평판디스플레이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육성 정책 및 산업 활성화로 관련 디스플레이 제품 수요는 견조할 전망</li> <li>○ 단, 한국산은 프리미엄 라인으로 분류되며, GCC를 제외한 이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낮아 값싼 중국산 수요가 증가</li> </ul>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 8 중남미

◆ **통상환경 개선(한국과의 FTA 체결지역 확대 예상 등)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지역 경제 불확실성 지속(인플레이션·사회적불안)으로 '23년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은 전년 대비 둔화 예상**

【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추이 】



【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비중('22년, %) 】



### 가. 2023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재정 불균형, 사회적 불안 지속 등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23년 중남미 경제성장률은 1.7% 전망(IMF, '22.10월)
  - \* '23년 중남미 경제성장률(%): (IMF) 1.7, (World Bank) 1.6, (ECLAC) 1.4
- **(물가)**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원유·가스·전기 등) 가격 폭등으로 물가는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23년 물가는 다소 완화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 중남미 물가상승률(IMF, '22.10월): ('21년) 9.8% → ('22년) 14.1% → ('23년) 11.4%
- **(투자)** 미·중 갈등, 미국 중심 GVC 재편으로 對중남미 FDI(해외직접투자) 확대
  -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으로 인해 해외직접투자 증가
  - \* '22.上 FDI 증가율(전년동기대비): (브라질)121.2%, (멕시코)24.5%, (콜롬비아)126.1% (OECD)
  - \* '중남미 지역에 780억 달러 규모의 니어쇼어링 수출 효과가 예상, 멕시코에서 절반에 가까운 350억 달러의 이득을 볼 것' (미주개발은행)
- **(정책)** 주요국(브라질·콜롬비아·에콰도르·칠레) 탄소중립 실현(~50년)을 위한 정책 확대
  - \* (브라질) 'Zero Methane Program', (멕시코) '기후변화대응 10대 행동계획' 등 수립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대응, 환율 방어를 위한 각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 단행
  - \* '22.12월 기준금리: (아르헨티나)75.00%, (브라질)13.75%, (콜롬비아)12.00% (칠레)11.25%

## 나. 2023년 수출환경

### □ (산업환경) ICT, 에너지 등 중심으로 중점 산업 육성

- (ICT 산업 확대) 5G 통신망, 스마트 SOC 구축에 공공·민간투자 증가
  - \* (에콰도르) 디지털전환 국가정책 ‘Digital Ecuador’ 추진 중, 5G 통신망·클라우드·빅데이터·전자정부·관제센터 등 구축을 위한 정부·기업의 ICT 분야 투자 확대
  - \* (멕시코) ‘2021-24 국가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인터넷 보급 및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투자 증대

#### 【 ICT 분야별 세부 계획 】

구분	추진 내용
5G 통신망	(멕시코) ‘22년 말까지 5G 보급도시 25개로 확대 예정, ‘50년까지 전국의 12%에 5G 보급 전망 (페루) ‘21년부터 사업자의 5G 이용이 허가/ 교통통신부, 농촌지역의 광대역 인프라 구축 가속화 * 통신사 Entel은 페루 내 5G 네트워크 구축에 약 7천만 달러 투자 계획
스마트팩토리	(멕시코) 팬데믹 중 노동집약적 공정 중단으로 큰 피해 경험, 기업 57% 생산 공정에 인공지능 도입 계획 * ‘25년까지 제조업 분야 인공지능에 약 1억 3백만 달러 투자 전망
스마트시티	(브라질) WEG, 네슬레, 지멘스 등 글로벌기업 및 브라질 대기업은 제조공정에 스마트기술 도입
스마트팜	(에콰도르) 과야킬시, ‘23년부터 교통·치안·재난·재난 통합관제센터 등 다수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예정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에서 농업 현대화 추진, 농업 분야 ICT 기술 접목 확대

- (재생에너지 개발) 중남미 재생에너지 전략발전 비중은 세계 1위(‘21년 기준)로, 수력·태양광·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추진
- 다만, 일부 국가(멕시코·브라질)는 전력난 해소 등을 위해 원자력 생산 확대를 시도

#### 【 주요 국가 재생에너지 산업 정책 】

국가	추진 내용
콜롬비아	‘22.5월 시행령 895호 발표, 비전통 에너지원(수소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프로젝트 활동계획 내용 포함 * 현재 20개 태양광발전소, 2개 풍력발전소, 10개 대규모 자가발전 등 프로젝트 존재
칠레	‘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Energia 2050’ 정책을 필두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세부 전략 수립
파나마	‘Plan Energetico Nacional 2015-2050’하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50년까지 70%로 확대 목표

### □ (통상환경) 중남미 내 한국과의 FTA 체결 지역 확대 예상, USMCA 및 IRA 발효로 한국기업들의 생산 이전 수요 증가 전망

- (FTA 체결 확대) 남미공동시장·에콰도르·과테말라 등 주요국 및 경제권역과의 FTA 협상 추진으로 체결 가능성 증가

발효 (8개국)	협상중 (6개국)	여건조성 (4개국)
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남미공동시장, 에콰도르, 과테말라	태평양동맹(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 (생산이전 수요 증가) 주요 완성차 업체(GM·포드·아우디 등)가 멕시코 내 전기차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부품기업(포스코·LC마그마 등)의 투자도 확대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 [증가 예상 품목] 반도체, 자동차부품, 자동차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반도체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산업 회복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입수요 증가 전망</li> <li>○ (멕시코) 해외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고려 중</li> </ul>
자동차부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주요 한국기업이 멕시코 투자 결정,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출 또한 증가할 전망</li> <li>* '22.1~9월 자동차 생산 전년동기대비 9.1% 증가(자동차산업협회)</li> </ul>
자동차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자동차 공급부족에 따른 예약구매 물량 해소가 '23년에 진행될 예정(한국 자동차 판매대리점 신차 담당자 인터뷰)</li> <li>○ 다만, 미국의 자국 위주 공급망 재편 정책으로 멕시코산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가 증가, 한국산 수입 수요는 제한적일 전망</li> </ul>

###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섬유류, 일반기계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섬유류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면활동 증가로 '23년 의류 수입수요 확대 전망(대형유통업체 Renner)</li> <li>○ 다만, 중국·인도산 섬유 수입 단가가 비교적 저렴하여 한국산 섬유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낮음</li> </ul>
일반기계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멕시코) '22~'23년 멕시코 기업들은 기계·생산장비 인수에 많은 투자를 할 전망(멕시코 중앙은행)</li> <li>* '22.7월 CAINTRA(변혁산업회의소)에 따르면, 누에보레온 기업의 36%가 기계·장비·건설에 투자, '21년 이후 최고 수치 기록</li> <li>○ 다만, 달러 환율 강세, 물류비용 상승 가능성은 우려 요인</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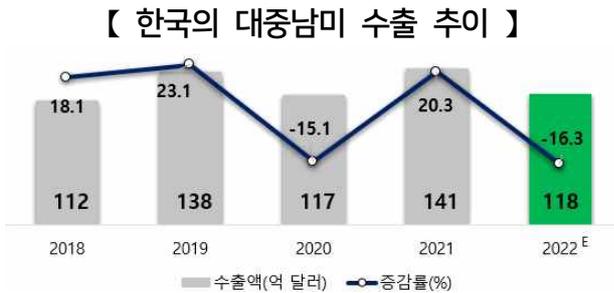
### □ [감소 예상 품목] 철강제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멕시코)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산 철강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112개 품목에 대해 관세 15% 부과하는 등 교역 장벽 강화</li> <li>○ 다만, '23년 브라질 건설시장이 활황을 지속하고, 미국이 브라질산 철강제품 수입규제를 완화('22.10월)함에 따라 내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수입 수요가 다소 확대될 전망</li> </ul>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9 CIS**

◆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영향으로 '23년 한국의 對CIS 수출은 보합세 전망



**가. 2023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23년 러-우 사태 직접 연관지역(러시아, 우크라이나)은 역성장, 중앙아시아지역(카자흐스탄 등)은 4% 내외의 경제성장 전망

【 CIS 주요국 GDP 성장률 전망(IMF, '22.10월) 】

구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몽골	우크라이나
2021년	4.7	4.1	7.4	2.3	5.6	1.6	3.4
2022년	△3.4	2.5	5.2	△7.0	3.7	2.5	△35.0
2023년	△2.3	4.4	4.7	0.2	2.5	5.0	-

- (교역) 러-우 사태에 따른 대러 제재로 對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러시아의 대외 수입 급감, '23년에도 교역 회복은 어려울 전망
  - 상위 교역국을 토대로 추정된 결과,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수입 △50% 급감
  - \* 예일연구소(Yale Chief Executive Leadership Institute) 자료로, 러시아 관세청은 '22.2월 이후 통계 미발표
- (물가) 루블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 및 서방 제재로 인한 물품 부족, 물류비 상승 등으로 물가 급등했으며, '23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 물가상승률('22년→'23년,%): (러시아)13.8→5.0, (벨라루스)16.5→13.1, (카자흐스탄)14.0→11.3 (IMF)
- (투자) 러시아 시장에서는 기업이 대거 이탈\*한 반면, 중앙아시아는 역내 RVC 재편으로 외국인 투자 증가\*\*(러시아·중국기업 진출 확대)
  - \* '22.11월 기준 약 1,000여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철수 및 중단(예일대 경영대학원)
  - \*\* '22.1~10월 우즈베키스탄 내 러시아 기업 2,565개사(+15%), IT 전문인력 대거 이동
- (환율) 외화인출 제한 및 천연가스 대금 루블화 결제 등 정책으로 루블화 안정화될 전망

□ (정책) CIS 각국 산업육성정책 시행

○ (러시아) 서방 제재 대응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대체정책' 강화

\* 639개 분야(전자·기계·의료·식품·화학·조선) 수입대체화 추진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2050 전략' 추진, 인프라·수자원 개발, 농업현대화 등 시행

【 카자흐스탄 인프라 개발 주요 프로그램 】

▷ 'Nurly Zhol 2020~2050' : 약 132억 달러 규모로 운송 인프라 및 물류창고 개발 추진

\* 한국 SK건설과 도로교통공사 구성 컨소시엄이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

▷ 'Nurly Zher 2020~2050' : 주택개발, 상수도 및 난방 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2022~2026 중장기 발전전략' 발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농업 생산성 제고, 민영화를 통한 성장 기반 구축 등 추진

\* '30년까지 1인당 GDP 4,000달러, '23~'26 평균 경제성장률 6.5% 달성 목표

## 나. 2023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CIS 각국은 전통 산업 구조(석유·가스·광산업·농업)에서 벗어난 그린에너지,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정책 추진

○ (수소경제 실현) '2035 러시아 에너지 발전전략' 수립, '24년까지 20만 톤의 수소 생산능력을 구축하고 '35년까지 10배의 수소 생산을 목표

○ (모빌리티 전환) 러시아 정부, '전기차 상용화 개발계획 2030' 발표('21.8월), 전기차 생산 확대 및 무인 택시·운송·드론 개발 등 모빌리티 전환 시도

○ (디지털 농업) '농업개발 2021~2025'(카자흐스탄)\*,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 2030'(우즈베키스탄) 수립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디지털화 추진

\* 농장 디지털화, 장비·기술 고도화, 고품질 종자 도입 등에 약 117.6억 달러 투자 / 농업 디지털화를 위해 '23년까지 스마트팜(20개), 선진농장(4,000개) 추가 조성 노력

□ (통상환경)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아시아·EAEU(유라시아 경제연합) 중심의 지역 내 공급망 재편이 강화

\* EAEU 회원국(5개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생산기지를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물류·운송에서 중앙아시아 및 EAEU 지역의 중요성 증가

\*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한 중앙아시아-중국 간 안보·경제협력 가속화('22.9월 SCO 정상회담 개최)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자동차부품,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석유류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부품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 운영 중단*으로 자동차부품 공급 급감, 단 AS 부품 위주 병행수입을 통한 일부 제품 수출 가능</li> <li>* '22.3월 현대·기아차 러시아 공장 중단(글로벌 기업도 현지공장 중단)</li> <li>○ (카자흐스탄) Astana Motors(현대차 조립공장 소유)는 연간 컨테이너 3만대 규모의 CKD/SKD 부품 물량 수입 중이며, 카자흐스탄 자동차 시장 활황으로 부품 수입수요 증가할 전망</li> </ul>
자동차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한국산 신차(현대·기아차)에 대한 주요 수입업체 영업정지</li> <li>○ (중앙아) 완성차 초과 수요 및 한국산 차량 인기로 수출 증가 전망</li> </ul>
석유화학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석유화학제품(폴리비닐·폴리에스터 등) 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나 서방의 대러 제재 장기화는 우려요인</li> </ul>
석유제품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hell 등 글로벌 기업이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고 Castrol, Total 등 업체의 추가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시장경쟁력은 강화되나, 공급망 차질 및 대러 제재 지속으로 수출 증가세가 다소 상쇄될 전망</li> </ul>
석유류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내 의류 제조·생산설비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나, 중앙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추세이며 비제재 품목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등 수출 상하방요인이 혼재</li> </ul>

### □ [감소 예상 품목] 일반기계,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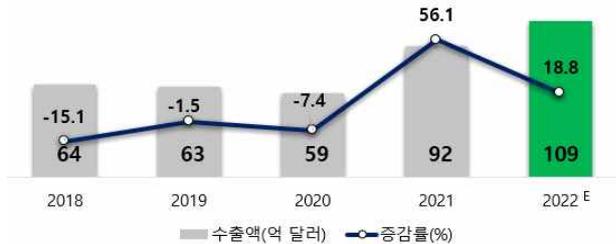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對러 수출통제 관련 사항허가 대상품목에 해당, 수출 제약요인으로 작용</li> <li>* (러시아) 기계·설비류의 경우 중국, 터키 등 우호국 수입을 우선 검토</li> </ul>
반도체	 (대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아시아지역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수입 물량이 저조</li> <li>○ 반도체는 對러시아 수출 제한 품목으로, 러시아 제재가 지속 되는 한 수출은 크게 감소할 전망</li> </ul>

주 : ☀️ 대폭증가(10% 이상) ☁️ 소폭증가(3~10%) ☁️ 현상유지(0~3%) ☔️ 소폭감소(0~10%) ☂️ 대폭감소(-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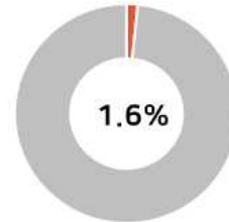
## 10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대규모 인프라 구축·제조업 육성정책 등) 노력 및 민간 투자 확대에 힘입어 '23년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

【 한국의 대아프리카 수출 추이 】



【 한국의 대아프리카 수출 비중('22년, %) 】



### 가. 2023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23년 아프리카는 3%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다수의 경기 하방리스크(부채·고물가 등) 상존
  - \*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21년) 4.7 → ('22년) 3.6 → ('23년) 3.7 (IMF, '22.10월)
  - \* 유가 상승은 일부 석유 수출국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식품가격 상승이 이를 상쇄
- (물가) 러-우 사태에 따른 원유·원자재·식품 가격상승, 환율 불안정으로 물가가 급등했으며, '23년 물가는 다소 안정되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년) 11.1 → ('22년) 14.4 → ('23년) 11.9 (IMF, '22.10월)
- (환율) 아프리카 국가 환율은 대외경제에 민감하게 반응, 높은 변동폭으로 불안정성 고조
  - 특히, 높은 부채비율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환율 리스크에 노출
  - \* SSA(Sub-Saharan Africa)에 발행된 유로본드: ('21년)128억 달러 → ('22년)136억 달러
  - \* 아프리카 국가 절반이 IMF 프로그램을 추진 중으로, '23년에도 부채 상환 압력 지속
- (정책) 대내외 투자 유치에 주력, 기업 규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 \* 글로벌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를 위한 특별경제구역 및 대규모 산업단지를 운영, 입주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 다만, 남아공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산업육성 및 현지 조달 강화를 위해 외국인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정책 시행, 현지 생산 비중에 대한 기준을 강화

## 나. 2023년 수출환경

### □ (산업환경)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산업 다각화 추진

\* 원유·광물·농산물 등 1차산업에 특화된 산업구조 보유,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에 취약

#### 【 주요국 산업 다각화 정책 】

국가	정책	주요 내용
가나	국가산업 활성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특별경제구역을 통한 투자 유치 및 전략적 산업 배치</li> <li>식품가공·제약·자동차·섬유/의류·석유화학·ICT 분야 지원</li> </ul>
남아공	산업정책행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성장, 수출증진, 제조업 환경 구축, 인센티브 확대, 에너지 생산, IT 기술 발전, 정책적 확실성 강화 등이 주요 정책</li> </ul>
케냐	국가산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제조 산업 보호(수입규제, 세제혜택 강화)</li> <li>섬유·의류(AGOA 활용), 자동차조립, ICT 분야 지원</li> </ul>
탄자니아	종합산업발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발전 최우선 과제로 산업화 추진, 세제혜택 등 투자 장려</li> <li>자동차조립·석유화학·농기계·조선·섬유/의류·제약 등 분야 지원</li> </ul>

- (인프라 개발) 각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 사안으로 선정, 도로·철도·항만·전력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 전체 인프라 수요가 연간 1,300~1,7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인프라 재원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강조

- (제조업 육성)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현대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

- 미국의 AGOA(아프리카성장기회법), EU의 EPA(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활용해 제조업 투자 유치 강화, 현지 생산 능력 배양을 중점으로 제조업 육성정책 시행

- (보건의료 투자) 낙후된 의료산업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정책 추진, '26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를 보일 전망(Fitch Solution)

\* '21년 SSA(Sub-Saharan Africa) 의료기기 시장규모 17.5억 달러(전년대비 +14.9%), '26년에는 23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Fitch Solution)

### □ (통상환경) AfCFTA(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역내무역 자유화 및 단일시장 형성

\* '22.10월 기준 에리트레아 1개국을 제외한 54개국이 가입, 상품무역 관세 90% 이상 철폐가 주요 내용이며, 관세율·원산지 규정 등은 지속 협상 중

\* (파일럿 프로젝트) '22.10월 케냐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무관세로 가나에 수출, '23년 본격 시행 기대

- AfCFTA 외에도 아프리카 내 8개 경제공동체를 통한 지역통합 움직임 활발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 [증가 예상 품목] 일반기계,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 육성정책 및 건설 프로젝트 재개 움직임으로 일반기계·건설기계 수요 증가</li> <li>단, 품질에서는 미국·영국 제품, 가격에서는 중국 제품을 선호</li> </ul>
자동차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형 SUV를 중심으로 한국 자동차가 인기이며, 남아공 등 주요국 내 한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확대 추세</li> <li>단, 주요국(남아공·케냐 등)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 강화로 완성차 수입 제한 조치는 제약요인</li> </ul>
선박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노후 선박 교체 움직임 활발</li> <li>* '22.5월 삼성중공업 아프리카 지역 선사로부터 8,623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3척을 수주(단, 수출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li> </ul>
무선통신기기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바일 이용자 증가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한국 휴대폰은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시장 형성</li> <li>단, 고소득층 제외 휴대폰 교체주기가 긴 편이며 중국산 제품(화웨이·트랜션 등) 대비 가격경쟁력 열위</li> </ul>

###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제품, 섬유류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화학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국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합성수지 등 화학원료 수입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이나, 중국·인도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 열위</li> </ul>
석유제품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프리카 대표 수입 품목으로 석유제품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이나, '23년에는 유가 안정화가 예상되어 수출은 유지될 전망</li> </ul>
철강제품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 프로젝트 재개로 철강 수요는 증가하나, 저가제품으로의 대체 수입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 우려 요인 상존</li> </ul>
섬유류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주도의 제조업 육성정책 수혜 산업에 해당하며, 중산층 증가에 따라 섬유 수요도 동반 상승</li> <li>다만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공동외부관세 35% 부과 예정 품목으로, 신규 관세율 도입 가능성은 제약요인</li> </ul>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 작 성 자

- 북미지역본부                    신용호
- 중국지역본부                    박영훈
- 유럽지역본부                    이주혜
- 일본지역본부                    이승희
-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서진원
- 서남아지역본부                채정훈
- 중동지역본부                    박설민
- 중남미지역본부                김희정
- CIS지역본부                    박건원
- 아프리카지역본부            허종원
- 무역투자연구센터            송민주

# 2023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Global Market Report 22-041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유정열
발행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13
전화	1600-7119
홈페이지	<a href="http://www.kotra.or.kr">www.kotra.or.kr</a>
문의처	무역투자연구센터(02-3460-7596)

• ISBN: 979-11-402-0547-9 (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